진짜교인 색출(?)방법

(눅10:17-24)

17. ○칠십 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2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2.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23.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진짜교인 색출방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색출이라는 말은 진짜교인이라는 말과 어울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색출이라고 하면, 범인을 색출한다거나 간첩을 색출한다, 또 색출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것이에요.
2차 대전 당시 유대인을 색출해낸 것, 당시 히틀러 휘하의 나치스가 전 유럽에서 유대인을 색

출해냈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가두고 6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학살을 자행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을 색출해내는 방법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제일 손쉬운 방법은, 유대인들이 꼭 티 나게 옷을 입고 다닙니다, 안식일 같은 경우에 까맣게 정장을 하고 다니니까 쉽게 찾아낼 수 있지요.
그리고 또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사는 지역도 게토화(化)되어 있었습니다.
모여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참 쉬운데, 옷도 정장을 안 입고 흩어져서 살 때는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좋은 독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 하면, 기가 막히게도 '편두지수와 안면개수'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편두지수'라는 것은 독일 민족을 이루고 있는 아리안 족의 두개골과 유대인의 두개골을 비교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두개골의 형태와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만들어서 그 두개골의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안면개수'라는 것은 이목구비의 위치를 측정해서 평균 수치를 만들어내 가지고 틀을 만든 다음,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틀을 들이대서 유대인이다 아니다를 가려내서 잡아다가 캐묻다보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까지 면밀하게 유대인을 색출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 중에서 진짜교인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유대인 식으로 편두지수나 안면개수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또 유대인들의 이름이 특이했다고 하잖아요, 구약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자연에서 이름을 많이 가져와서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ein Stein)은 돌 하나라는 뜻이고 골드만, 이런 식의 이름들, 그런 식으로 구분해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회는 진짜교인과 가짜교인이 같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집사님이건 평교인이건 할 것 없이 그 중에 진짜교인이 있고 가짜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려낼까요?

유대인 색출할 때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기쁨의 이유를 밝혀내면 됩니다.
무엇으로 기뻐하는가를 밝혀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에 의거할 때, 확실하게 확증할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지구, 이 세상 안에는 기쁨이 생산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쁨이 이 세상 안에서는 나올 수도 만들어질 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첫 번째 증언은 기쁨의 동산인 에덴, 기쁨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인 에덴 밖으로 인간이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독도 망언을 연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뻐할 수 없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 사이에 가족에게 일이 생기거나 변고가 있을 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마음이 세상 바깥에서 무언가 기쁨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 기쁨을 수입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제차처럼, 외제 명품 가방처럼.
그렇지 않고 이 세상 안에서 찾는 기쁨은,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은 다 짝퉁이고 가짜고 죄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유일하게 이곳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 안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네 번 언급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귀신이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이 떨어지듯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니까.
공중은 우리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내 마음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있습니다.
공중에 있는 내 마음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육체의 노예노릇 하고 있는 상

태에서 이런 귀신들이 항복하고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
이 땅에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영적인 차원을 살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 한,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기쁨의 대상이 아니요, 기쁨을 중지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느냐?
기쁨 자체를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를 다른 곳으로 제시해주십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기쁜 일이 아닙니까?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얘깁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감(感)이 없어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기쁘질 않아요.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쁜 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서울대 합격해서 합격자명단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 자식의 이름이 서울대 합격자명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기쁩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 명단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기쁩니다.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명단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과 특권과 프라이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의무,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얘깁니다.
서울대학에 이름이 등록되었다는 얘기는 서울대학이 제공하는 그 모든 교육의 기회가 다 내 것이 된다는 얘기이고, 서울대 졸업장을 갖게 될 때, 이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게 기쁜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은 이유는, 도무지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고는 하지만 천국이 어떤 것인지,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면 어떤 혜택이 지금 주어지는 것인지 지금 이 시간에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낸 그 현장에서 기쁨의 이유가 '아, 이것을 보니까 이렇게 내가 예수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사용하는 예수이름 때문에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니까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이 돼있구나, 야! 이게 웬일이야?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니?'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어? 이 땅에서 귀신이 나가네!'
귀신이 내가 예수이름을 말할 때 항복하는 모습이 왜 기쁩니까?
옆의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인간사회가 그걸 보고, 이목이 집중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고, 명예가 주어지고… 이 세상 안에서 기쁨의 이유로 바뀌어버립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서의 그런 것들은 다 피부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 때문에 기쁩니까, 내 자식이 대학교에 입학해서 기쁩니까, 돈을 벌어서 기쁩니까?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기쁨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하늘 때문에 내가 지금 기쁜 게 아니라면, 우린 교인이 아닙니다.
기쁨의 이유가 똑같고, 그 기쁨의 이유에 도달하는 방법을 예수님으로 채택한 것이라면, 천국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를 부르는 이유라면, 믿지 않은 사람과 기쁨의 이유가 똑같은데 그것을 얻는 방법이 다른 것이라면, 그리고 그 방법이 예수 믿는 것이라면, 그건 교인이 아닙니다.
진짜교인을 색출해낸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비신앙인을 색출해낸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뻐하십니다, 교인 숫자가 늘었다고.
귀신이 예수이름으로 항복한 것을 기뻐해도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 숫자가 많아진다고 기뻐한다면 그 목사님은 목사님이기 이전에 진짜교인이 아닙니다, 비신앙인입니다.
장로님이 사업이 잘됐다고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장로님이 장로이기 전에 진짜교인이 아닙니다.
진짜교인이라면 이유가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하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학은 느끼잖아요?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천국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뻐하신다고 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유일하게 누가만 이곳에 적고 있는데,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 성령을 통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성령을 통해야 될까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속으로는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고 천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아버지와 생각하는 천국을 느낄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느낍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 느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열두 살 때 이미 율법사들과 논쟁을 할 정도로 하나님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그렇게 천국의 아버지의 집에 대한 생각이 충만하시지만, 느끼고 그것을 실제로 감지하시고 현실감으로 갖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삼위일체가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천국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 모든 자에게 성령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겠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은, 이제는 세상에서 기쁠 일이 없을 것을 작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아니하리라’
회개하기 전에는 돈 잘 벌어서 기쁘고, 건강해서 기쁘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기쁘고, 이런 게 다 기쁨의 이유였는데, 회개한 뒤로 이제는 기쁨을 하늘에서만 찾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죽어서 이 세상에서는 기쁨을 포기하고 하늘의 기쁨만을 소망하는 것, 이게 회개고 세례 받는 거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세례 받고 나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식들이 다 형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믿음과 바른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이고, 바른 믿음과 바른 소망이 바로 회개의 결과입니다.
회개는 이제 더 이상은 이 세상 안에서는 기쁨을 찾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으로 기쁘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생각하고 있고 그냥 우리의 입에서만 담겨져 있던 하나님아버지와 천국과 승천하신 주님이 진짜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 하늘로 기쁜 상태에서 귀신이 쫓겨나갈 때, 그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담담하게 여기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근데 이러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고쳐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숭배하려 할 때 깜짝 놀라면서 이러

지 말라고 난리를 칩니다.
기뻐하는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슬기 있는 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가려졌을까요?
슬기와 지혜라는 게 뭡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 안에서 상황판단이 정확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민첩하고, 또 슬기라는 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 기쁨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저술가가 다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기독교인 저술가를 제외하고.
자기 계발서,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으려면 이렇게이렇게 살아라,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늘만이 기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세상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감춰질 수밖에 없지요, 천국이.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기쁨이 필요하기는 한데, 왜냐하면 속이 비어있으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이 속이 빈 상태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질 때 충족되면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므로 어린아이도 기쁨이 필요하기는 한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때 방법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뻐해야할지 모르고,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연합할 때에, 하늘이 기쁨의 근거로 주어진다는 얘깁니다.
하늘을 느낄 수 있게 성령을 주신다는 얘깁니다, 아버지를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를 진실로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진짜교인 색출방법, 간단하지요?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김 집사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달덩어리 같아요, 햇빛처럼 빛납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고 봤더니 남편이 사업이 잘되었기 때문입니다.

짝퉁 기쁨 때문에 기뻐하는 가짜교인입니다.
하늘로 기뻐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되는 것으로 기뻐할 여지가 없어요.
사업이 잘되면 이 돈을 대체 어디다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담담하게.
아들이 서울대학에 들어가면 하늘로 기뻐하는 사람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서울대 벳지 달고 교만하지 않을까?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진짜교인 색출해내는 기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성령님을 충만하게 보내주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승천하신 주님만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직 충만히 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결단으로 이 세상 안에서는 더 이상 기쁨을 찾지 않기로 결심하게 하시며, 오직 하늘만을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느끼며, 그곳을 기쁨의 이유로 삼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이 세상을 나가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